“관자재 보살의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정수사 원광 스님, 관자재 재활전문요양병원 개원

환우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해 포교에 앞장설 불교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평창 월정사 말사 부산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은 5월 11일 부산 연산동에 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관자재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관자재요양병원 이사장 원광 스님은 6월 9일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고 자비 실천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병원 이름을 관자재라고 했다”며 “현대화되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환우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전문 인력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곧 자비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문을 연 관자재요양병원은 연면적 5800㎡으로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재활의학, 가정의학,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방침구과 등 다양한 전문 치료로 재활을 돕는 요양병원이다. 특히 병원 내 규모에 비해 병실 병상을 287개로 한정해 이익보다는 환우들의 움직임 동선과 쾌적함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관자재요양병원은 특히 병원을 찾은 환우들을 위한 전문 치료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 및 우울 방지 등 환우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병실과 휴게시설을 모두 정남향으로 배치해 채광이 뛰어나도록 했으며 자칫 지겨울 수 있는 물리치료를 위해 2층 물리치료실을 통유리를 설치해 외부와 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치료를 목표로 찾는 환우들이 많을 것을 예상해 물리치료실에 종교실을 마련했다. 환우 뿐 아니라 가족들이 부처님을 뵙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식사를 마련하는 조리실을 병실보다 상층에 두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금식을 해야 하는 환우들을 배려했다. 식당 옆에는 하늘정원을 마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휴식을 취하며 직접 상추와 고추를 키우며 어릴 적 추억을 돌아보도록 했다.

이날 원광 스님 무엇보다 환우들을 위한 건강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병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
최첨단 기술 동원 건물설계
지역민 위한 자비행 서원

원 내 환기에 가장 신경을 썼다.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며 “접근이 용이해 가족들의 면회가 편하고 마음을 위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울감을 방지하며 또한 병을 치료하는 전문성 까지 최고로 마련해 정성을 다하는 병원이 곧 포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병원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스님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스님인 자신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했다. 특히 “그 때 당시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전무해 임종을 앞둔 불자들과 스님들이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지막 모습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전문화된 불교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효능원을 운영하며 등급에서 제외된 소외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줄 창구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5월 11일 개원한 관자재요양병원 이사장 원광 스님이 병상을 둘러보며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앞으로 원광 스님은 관자재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1층 무료 카페 공간을 지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정수사 무료급식을 7월 중에 다시 재개하며 또 사회복지법인 효능원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연제구 사암불교연합회 회원들과 포교에 더욱 매진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체 환자들을 위해 회향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원한 관자재요양병원은 2011년 부산 금정구에 문을 연 관자재요양병원에 이어 두 번째 개원이다. 금정구에 있는 관자재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운영과 치료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 연산동 관자재요양병원 외부 모습

하성미 기자

천태전법도량 정법사, 중창불사 회향 법요식

6월 8일, 설법보전에서 3000여명 참석

천태종 부산 정법사(주지 도진)가 부산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천태전법 도량으로 거듭났다.

정법사는 6월 8일 정법사 설법보전에서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덕 스님, 공한수 부산시의원, 이영숙 부산불교연합회 고문(코모도호텔 대표)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중창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에서 도용 스님은 “고해중생 건지시려 부처님은 오셨으니 가람을 건립하여 크나큰 기쁨 속에 맞이하는구나. 다만 깨끗한 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거룩한 삼보님께 정례를 올려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부산 정법사가 2008년 창건 이래 가장 큰 경사를 맞이했다”며 “장엄한 중창불사가 있기까지 발심과 원력으로 정진해오신 주지 도진 스님과 신도회 간부님,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 드린다”고 격려했다.

천태종 부산 정법사는 6월 8일 설법보전에서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정법사는 지난 2008년 10월 부산 서대신동에 위치한 지상 5층의 연면적 3,895㎡(1180평) 규모의 학원 건물을 매입하고 정법사 불사를 추진해왔다. 당시 약 264㎡(80평) 규모의 법당이 들어선 4층을 제외하고 다른 층은 입시학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후 정법사는 2013년 10월 14일 중창불사를 시작으로 부처님 존상 이운식, 2014년 6월 불상 및 상월원각대조사 진영을 3층 관음전으로 이운했다.

2014년 10월 24일 4층 대법당에 3400불을 조성한 정법사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가람 불사가 진행된 상태로 부산 서구와 중구, 영도구 신도들이 주로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대명여고 ‘We Love 내성천’ 퍼포먼스

부산 대명여고 학생들이 지율 스님의 환경 보전의 뜻에 동참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6월 5일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대명여고 전교생은 학교 운동장에서 ‘WE ♡ 내성천’ 문구를 만드는 '제22회 환경축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내성천의 환경보존을 위한 서명 운동 및 ‘현명한 소비가 70억의 인구를 살린다(Seven Billion Dreams. One Planet. Consume with Care)’ 는 슬로건을 주제로 환경 OX퀴즈 대회, 알뜰장터, 환경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점심시간 및 5, 6교시를 이용해 행사를 진행한 전교생 1000여명은 학교 내에서 진행된 지율 스님의 ‘수그림 전시회’ 와 ‘내성천 생태도감’ 의 저자인 박은선 작가의 초청 강연에도 참석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지율스님은 “낙동강을 맑혀온 내성천이 영주댐 공사와 환경 파괴로 인해 그 역할을 잃고 있다”며 “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에게도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성미 기자

대구 · 경북 ‘팔공산 둘레길’ 조성한다

대구 · 경북도 등 8일 업무협약… 108km 숲길 조성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팔공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생태환경, 문화,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숲길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은 6월 8일 대구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앞 분수대 앞 공연장에서 ‘팔공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팔공산 둘레길 조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90억원을 들여 팔공산을 순환하는 총연장 108㎞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레길은 총 16개 코스로 구성되며 은해사, 팔공산 석굴암, 부귀사, 약사암 등이 둘레길 코스에 포함돼 불교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둘레길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또 기반시설 조성 및 연계협력사업 지속 발굴 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활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협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대구 · 경북 지역 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구 · 경북의 상생협력은 지역민들의 교류 확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팔공산 둘레길 노선안

구 간	코 스	행정구역	연장(km)
1	팔공문화원~용수교	대구 동구	4.5
2	용수교~내동마을	대구 동구	3.1
3	내동마을~덕곡삼거리	대구 동구	7.9
4	덕곡삼거리~대왕재	대구 동구, 경북 칠곡군	5.4
5	대왕재~가산산성 진남문	경북 칠곡군	6.1
6	가산산성 진남문~윗산당마을	경북 칠곡군	10.4
7	윗산당마을~팔공산석굴암	경북 칠곡군, 군위군	9.5
8	팔공산석굴암~가호2리	경북 군위군	7.3
9	가호2리~치산관광지	경북 군위군, 영천시	8.9
10	치산관광지~부귀사	경북 영천시	7.7
11	부귀사~신원리캠핑장	경북 영천시	5.0
12	신원리캠핑장~은해사	경북 영천시	8.2
13	은해사~약사암입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6.5
14	약사암입구~우정식당	경북 경산시	5.7
15	우정식당~갓바위 만남의광장	대구 동구	3.8
16	갓바위 만남의광장~팔공문화원	대구 동구	8.5
팔공산 둘레길 총 연장			108.5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생협력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를 아우르는 팔공산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 ·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간의 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서운암 ‘제3회 하늘꽃 천연염색 축제’

자연의 색을 담은 천연 염색의 화려함이 산사를 물들였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동진)가 제3회 ‘하늘꽃’ 천연염색 축제를 6월 6일~7일 서운암 장경각에서 진행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노천문도회장 성파 스님, 이수성 전 국무총리, 윤영섭 국회의원과 서운암 천연염색반 회원 100여명 및 전국에서 찾아 온 동회회 및 사진작가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인 정관채가 진행하는 천연염색 퍼포먼스 진행 후 10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동참해 포퍼먼스를 재연하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어 특별공연으로 백성스님의 전통무 오방춤이 선보였다.

서운암 감원 동진 스님은 “천연염색 축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허위나 가식 없이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며 “자연과 색감의 어우러짐을 통해 새로운 맛을 연출해내는 축제에 오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世界佛敎 法王廳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